

HALO

전략과 기술의 통합

조직 차원의 AI 정착과 성과 확장

월드비전 AI 플랫폼 HALO 사례 | 2026. 4. 9. | 김준호

HALO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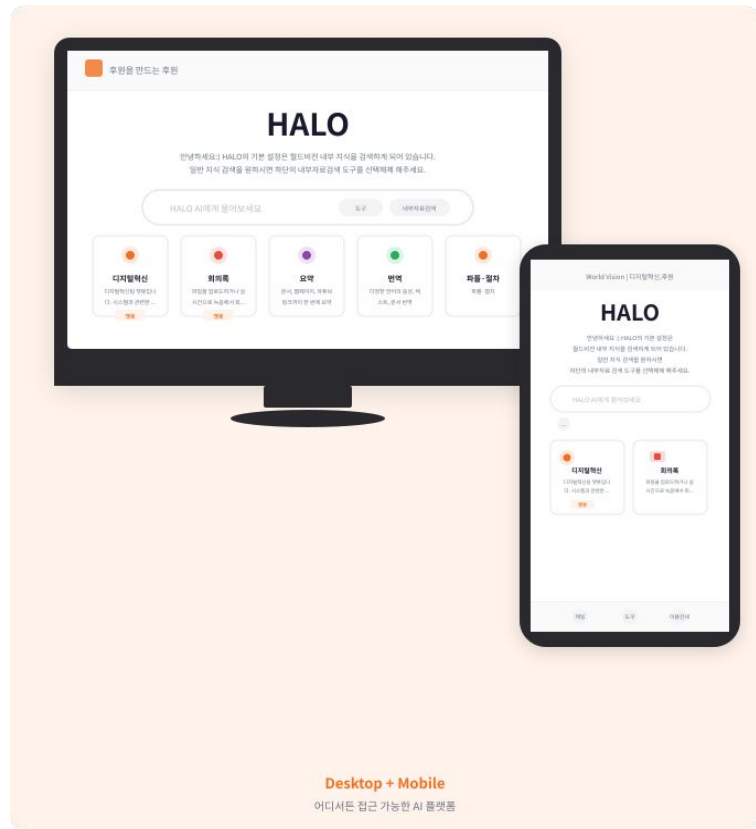
2025년 11월 4일 탄생한 월드비전의 AI 챗봇 서비스

이름의 의미

천사들 머리 위에 둥근 빛, 영어로는 Halo(헤일로).
발음만 바꿔 '할로'라고 부릅니다.

원래 인도함, 보호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월드비전의 가치와 맞닿아 있습니다.

"할로"라는 인사말도 연상되어 친근하게 부를 수 있었습니다.



HALO가 하는 일

2025년 11월 탄생한 월드비전의 AI 챗봇 서비스

내부 지식 기반 답변

지침, 정책, 가이드를 학습하여
직원 질문에 즉시 답변

Salesforce 연동

후원 현황, 아동 정보를
데이터 기반 실시간 응답

외부 LLM 연계

내부/외부 지식 모드
자유 전환 가능

종합 AI 서비스

번역, 요약, 회의록,
특화 프로젝트까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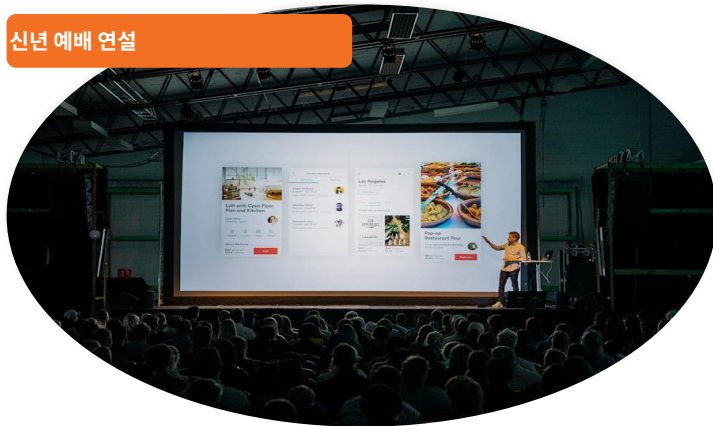
HALO의 시작점

2025년 초, 신년 예배에서 시작된 AI 이야기

회장님의 AI 이야기가 길어져서
떡국이 불어버렸습니다.

그만큼의 관심이 있었기에
HALO가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신년 예배 연설



떡국이 불어버렸습니다

왜 회사 정보를 알려면 꼭 사람을 찾아가야 하지?

출발점은 AI가 아니라 문제였습니다.

문서가 흩어져 있다

수많은 문서, 규정, 매뉴얼이 산재해 있어 결국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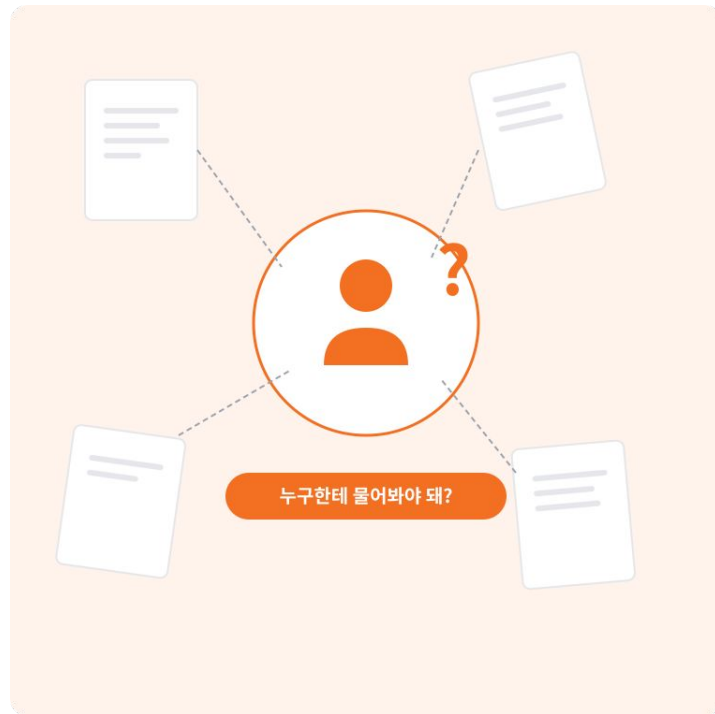
사람을 찾게 된다

문서가 있는데도 사람을 찾는 이유?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조가 필요했다

사람을 거치지 않고 조직의 지식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이 문제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직원 전체에게 AI 구독을 해줄 수 없었다

오판 이 문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당시 판단

GPT, Gemini가 난리인데 전원 구독 불가.
API로 쓴 만큼만 비용을 내는 구조를 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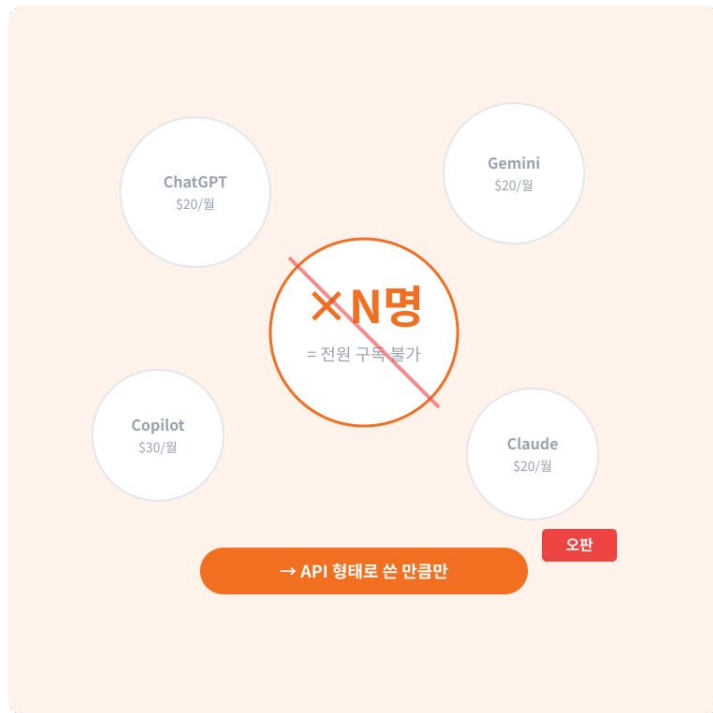
의도

AI를 잘 쓰는 분은 이미 구매해서 쓰고,
꺼려지는 분들의 AI 빈부격차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현재

하지만 지금은 개인이든 팀이든
어떻게든 LLM을 가입해서 사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출발점은 AI가 아니라 문제라는 것입니다.



국내 서신 작성 자동화

아동 정보를 기반으로 AI가 초안을 작성하고,
복지사가 검토·수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75%

작성 시간 단축

15% ↑

업무 만족도 증가

AI 기반 서신 작성



현업들이 직접 활용하며 대단히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해외 서신 번역 자동화

해외 아동 편지가 이미지 형태로 옵니다.
AI가 이미지를 인식하고 번역하게 했습니다.

Before

자원봉사자 1차 + 2차 번역, 33일 소요

After

AI 번역으로 1차 과정 완전 제거

번역 품질 표준화 + 전체 소요 시간 대폭 단축



HALO 구축과 확산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넓혀갔습니다.



"한번 써봐"가 아니라 "와서 직접 해보세요." 강제가 아니라 경험.

직원들이 직접 체험합니다

사옥 1층 부스 운영 · 직원 체험 이벤트



도입 후 변화

피플팀 업무 전환

직원 문의 응대 → 관리·기획 중심으로 전환
시스템을 "모시던" 팀이 가장 적극적인 팀으로 변화
학습 문서도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개선 중

Salesforce 연동 효과

후원 현황, 아동 정보를 채팅으로 바로 조회
기부자 상담의 속도와 품질 동시 향상

특화 프로젝트

회의록, 목표 수립 가이드 등 특정 과제에
특화된 챗봇을 만들어 활용

사용률이 엄청 높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 평균 70명

현재 일일 사용자 수

1

경쟁 도구

ChatGPT, Gemini, Copilot — 이미 손에 좋은 AI

2

부정확한 답변

제도 변경 미반영, 모르는 내용에 대한 오답

3

핵심 질문

HALO는 무엇을 잘해야 하는가?

내부 지식의 정확성 — 이것을 담보하지 못하면 HALO를 논할 수 없습니다.

핵심 질문

HALO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 질문이 전략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한 세 가지



속도

느리면 안 씁니다.
질문했는데 답이 늦으면
그냥 GPT를 열게 됩니다.



정확도

부정확하면 안 씁니다.
휴먼인더루프 구조로
사람과 AI가 함께 다듬습니다.



이유

HALO에서만 할 수 있는 일.
계약서 검토, SF 연동 확장 등
들어와야 할 이유를 만듭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는 이유

"여기서 중단하면,
그건 콤포트존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 HALO가 완벽해서 계속하는 게 아닙니다.
- 멈추면 조직이 AI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합니다.
- 완벽한 도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도구라도 심고, 개선하고, 뿌리내리게 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 1 기술이 아니라 문제에서 시작하세요.
- 2 작은 성과를 먼저 만들어 보세요.
- 3 반응이 없더라도,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HALO는 완성된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여전히 싸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